

2010년 9월 29일 가을축구대회와 중등부로 올라가는 은하수축구단출신의 아이들 관리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여쭙 보았을때 온답신입니다.

각 지역의 단장님들도 숙지하시고, 하늘의 뜻과 주님의 심정에 맞는 축구단 운영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프라비월드 은하수클럽에는 여타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도 올라와서 보기에 단장님들께 직접 메일로 드립니다.

임탁곤 드립니다.

임탁곤 강도사

9. 30 편지 답이다.

운동을 통한 각종 예술을 통해 전도하는 것과 이미 있는 자들 운동으로 잡는 것 다르다.

철저히 말씀으로 잡아야 된다.

운동으로 하되 20% 비중 두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만화나 화면을 제작해서 자꾸 머리에 뇌에 넣어줘야 된다.

축구 법과 그 행위를 옛날 선생 하듯이 인생을 주의 법으로 배워. 이와 같이 이같이 하도록 해줘야 된다.

어린이들은 우선 보는 것 듣는 것 그대로 흘러간다. 스펀지다. 보는 대로 흡수 하고 듣는 대로 한다. 이를 알고 철저히 지도자들 하게 교육시켜야 된다.

축구로 성령 불 붙이고, 골인 당하면 지듯이 사탄에게 예수님 말씀 순종 안하면 골인 당한 것이라고, 주일 빼먹으면 골인,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골인 당하는 것이고, 기도 찬양 안한 것이 골인 당한 것, 실수한 것, 예수님 앞에 말실수 행동 실수한 것 볼 뺀 것 등으로 교육 연구해서 철저히 집에서도 배우게 해라.

하루 몇 골이나 먹나 보고, 몇 골 넣나 보고, 계산해 보라고 해.

안녕.